

두 번째 인원점검

성경본문 <민수기 26장 1절 ~ 4절, 63절 ~ 64절>

[1] 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4]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 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63]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민수기에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전체 인원수를 확인하는 내용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원파악에서는 전쟁에 나아가 싸울 만한 인원수가 지파별로, 족속별로 얼마인지 조사하였고, 그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두 번째 인원파악에도, 각 지파의 인원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하고, 더하여 각 지파의 증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보면, 첫 번째 인원수를 점검했을 때에는 **603,550명(민1:46)**이었고, 두 번째 인원수를 점검했을 때에는 **601,730명(민26:51)**으로 전체적으로는 1,820명이 줄었습니다.

첫 번째 인원 파악과 두 번째 인원 파악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과 역경을 통과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 인원점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여 점검하시고자 하는 기준을 살펴 보고 싶습니다.

1.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믿음이 차이입니다.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4]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 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론도 죽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했을 당시에 유아였던 사람들이나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던 20세미만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 세었을 때의 인원수와 두 번째 세었을 때의 인원수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의미가 있겠다고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사백 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유지할 만한 민족으로 성장하

는 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을 때의 출애굽시키신 인원수가 약 60만 명이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약 60만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정 60만 명이면 충분했고, 사람이 많아서,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생활과 맞물려서, 그들에게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때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부모들의 불순종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길었던 사람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믿음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셨습니다.

[63]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염병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시기부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와 당시에 20세 미만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란 가운데에서도 죽어야 할 사람들을 모두 광야 가운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자신의 영광을 즐거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곳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예전에는 어려서 순종하였고, 지금은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는 연단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2.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